지역 문화예술 발전 위해 걸어온 길

김제미술협회, 공공미술 프로젝트 · 전국벽골미술대전 등 문화예술계 · 시민 일상에 활력 불어넣어

(사)한국미술협회 김제시지부는 올 한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미술 저변확대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마련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사)한국미술협회 김제시지부(이하 김제미협)는 올 한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미술 저변확대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마련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2021년 상반기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 추진으로 여성·가족친화거리에 벽화 4점, 예술조명 4점, 타일벤치 14점, 총 30점의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장소를 조성했다.

이후 70여명의 지역 미술인이 참여한 '제51회 김제미술협회 회원전' 및 김제의 명소를 탐방한 후 김제시를 테마로 완성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제13회 아름다운 김제전'을 통해 김제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미술관람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제22회 전국벽골미술대전'은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로 총 304점의 출품작 중 197점의 입상작품이 전시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역량있는 신진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했다.

또한 '시민대상 미술강좌 운영', '여성 친화거리 숲속 동화마을 전람회', '김제역 공영주차장 벽화그리기 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김제미협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헌을 인정받아 김제미협 임영하 지부장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45회 김제예술제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제미협 임영하 지부장은 "30여명 정도 활동하던 김제미술협회가 지역 미술인들의 열정적인 창작활동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는 활성화 되어 80명 이상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김제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안정근 시인, 서정의 뜨락 펼쳐내

네 번째 시집 '나는 너의 풍경이 되어' 출간

안정근 시인(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이 네 번째 시집 '나는 너의 풍경이 되어'를 출간했다고 전했다.

시인은 지난 2015년 '주머니에 별 하나' 이후 2년에 한번 꼴로 시를 세상에 내놓고 있다.

삶의 다양한 조각, 일상에서의 대상의 연관성, 관계에 대한 묘사 등을 쉬운 문체의 시어로 표현해내는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서도 늘 보여주었던 서정의 뜨락을 펼쳐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번 네 번째 시집에서는 그가 그동안 시 작업에서 견지해 온 대상과의 관계에 초점을 둬 연작한 시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언어학자로서 그가 바라보는 언어의 본질과 화용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시도 접할 수 있다.

그의 시는 시적 대상에 대한 단편적 묘사보다 그 대상이 주변에 미치는 상호 관계에 대한 묘사에 시선을 더 보내왔다. 이번 시집의 제목에서 보이듯 나는 너의 풍경이 되고 너는 나의 풍경이 되는 우리의 관계 같은 것이다.

'내 마음의 군불'과 '가끔은 깊은 생각에 잠겨', '그래서 반짝이는 그날' 등 3개의 소주제로 나눠 '가끔은 멀어지고', '가끔은 생각에 빠지며', '가끔은 까칠해져 글을 쓰는' 시인의 자아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시집에서도 역시 시인은 소박하고 섬세하지만 가능한 쉬운 언어로 독자에게 다가선다. 글쓰기란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알 수 없는 글이나 무딘 생각은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며, 아무런 흔적도 남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때문에 시 작업은 상처를 보듬는 시선이며, 우리 내면에 잔잔하면서도 삶을 다시 조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 시인은 말한다.

'시대가 변하고, 나도 변한다. 그러나 글을 쓰고 나면 거기 늘 내가 있다. 나다운 내 글이 있다.'

서두에 적힌 시인의 말처럼 그에게 글이란, 또는 시란, 바로 자신이 아닐까.

한편 시인 안정근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유학해 1987년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 덕진예술회관, '나의 어린왕자 이야기' 공연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은 오는 18일 오후 7시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발레시어터의 발레컬 '나의 어린왕자 이야기' 공연을 유튜브로 송출한다. '전주덕진예술회관' 또는 '나의 어린왕자 이야기'로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발레'와 '컬'의 합성어인 발레컬은 발레의 아름다운 몸동작과 다이내믹하고 스펙터클한 비보잉과 팝핀, 뮤지컬의 드라마 같은 요소가 합쳐진 장르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프로발레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북발레시어터는 '어렵지 않은 무용공연',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모토로, 관객들에게 창작 발레의 묘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3D 영상을 이용한 화려한 무대 연출과 신나는 재즈 베이스 음악, 무용수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안무를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프랑스 문학작품인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삼아 전북발레시어터만의 매력으로 60분 동안 재해석된다. 누구나 가졌던 연약하고 순수한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어린 왕자의 눈을 통해 삭막한 현실에 등한시됐던 꿈과 희망들을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연의 자세한 사항은 예술단운영사업소(063-281-665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정읍시, 유물 기증자 6명에 감사패 · 기증증서 전달

정읍시는 올해 정읍시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기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증증서와 감사패는 정읍 무형문화재 관련 음반과 백제 토기, 우암 송시열 관련 자료 등 소중한 유물 총 181점을 기증한 6명에게 수여됐다.

이건웅(전주시 완산구) 씨는 정읍에서 우암 송시열(1607-1689)의 마지막 곁을 지킨 이후진의 후손으로, 1689년 2월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된 '우재송선생정읍수명시일기사' 등 송시열 관련 유물을 기증했다.

또 유성길(정읍시 일천길) 씨는 설경산수화로 유명한 정읍 출신 토림 김종현(1912-1999) 그림과 독립운동가 백정기(1896-1934) 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증했다.

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 조택수 이사장은 1960년대 정읍 공무원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에 전달했다.

또한 태인 독립운동가 김부곤의 후손인 곽규·김금숙 부부는 김부곤 선생이 국회의원 출마 당시 사용했던 선거사무실 현판과 1940년대 법주사 미륵대불 복장 당시 김부곤 선생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달했다.

매년 기증을 이어오고 있는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은 내장사(산) 관련 자료와 정읍 무형문화재 관련 음반을 기증했다.

이와 함께 김세신(전주시 완산구) 씨는 토림 김종현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백제 토기 1점 등 소중한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 유물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박물관의 각종 전시와 학술·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자에게는 박물관 특별행사 초청과 발간물을 제공하며, 특히, 기증자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게시하는 등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유진섭 시장은 "기증해 주신 소중한 유물들은 기증자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각종 전시와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해 정읍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99명 순창북중 학생 '디카시' 작품 전시

순창 옥천골미술관서 26일까지

순창북중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지난 14일 순창 옥천골미술관에서 오프닝 행사를 갖고 이달 26일까지 전시된다. 전시된 작품은 순창북중학교 99명의 학생들이 만든 '디카시' 작품이 전시됐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를 말한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다.

전시회 첫날인 이날 오프닝 행사로 테너 김영준 성악가와 하랑앙상블이 참여하여 전시회 분위기를 한층 고풍스럽게 만들었고, 작가로 참여한 순창북중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이 방문해 이번 전시회를 축하해줬다.

이번 전시회는 순창북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각각 자유학기제 주제학습과 국어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참여했다.

학생을 지도한 순창북중학교 교사들은 "'디카시'라는 새로운 작품 과제에 몰두한 학생들을 보며, 남들이 보라는 것만 보고 남들이 그리라는 것만 그리던 학생들이 이번 창작활동에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사물에 대해서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하고 분석하는 힘을 기른 거 같다"며 "이번 활동에 아이들에게 좋은 전환점이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회를 보러온 학부모들은 "그동안 핸드폰만 가지고 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안 좋았는데 이렇게 사진도 찍고 시도 쓰고 했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고, 기특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골미술관은 미술관이라는 높은 문턱을 낮춰 지난 8월과 11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을 그리는 순창의 미래화가 그림展(전), 풍산초등학교 학생들의 동화작가 전시회 등을 열며, 군민 모두를 위한 열린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